위기의 '4050 가장들'

별거 비관 사망에 부부싸움 후 추락사

이혼·가정불화·생활고 등 중압감

이혼 등 가정 불화나 생활고의 중압감에 시달린 40·50대 가장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년 남성이 가정·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8시47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3년 전 부인과 별거한 뒤 홀로 살아온 조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씨는 근로자 대기소를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최근 일거리가 줄어들며 생활고를 비관해 술에 의지했고, 알코올 중독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씨를 발견했을 당시 방안에는 먹다 남은 라면과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방바닥에 누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광산구 산월동 모아파트에서는 이 아파트에 사는 편모(43)씨가 숨져있는 것을 부인(41)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편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부인이 가출하자 이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18분께 광산구 한 원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던 이모(52)씨가 1층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고 집을 나간 이씨는 자신의 원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던 중 4층에서 줄이 끊어져 추락했으며 머리를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아내와 부부싸움 뒤 아내가 현관문을 잠근 뒤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40·50대의 잇따른 자살 또는 사고사는 구조조정이나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정 내 불화가 심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 남성의전화 신인용 대표는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중년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생활고나 그로 인한 부부갈등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40·50대들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경제난이나 가정문제 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근로정신대 모금운동 10만명 돌파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모금 운동을 펼친 '10만 희망릴레이 운동본부'는 1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 교직원 최근까지 피해학생 접촉

피해자 8명중 6명 스트레스장애·우울증 호소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인 교직원이 피해학생 일부를 최근까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교사와 만난 학생들은 최근까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증상이 악화되는 범 불안 장애,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지부와 이명숙 변호사 등은 15일 "지난 6~1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의진 교수로부터 입원상담 및 치료를 받은 인화학교 피해자 8명 중 6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최근 가해자인 교직원을 만난 사실이 치료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A양은 신 교수와의 상담에서 "과거 사건과 관련된 김모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밝혔으며, 신 교수는 "A양이 김씨를 만난 뒤 증상이 악화돼 접근 차단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B양은 김씨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교수는 피해 학생 6명에 대해 외상성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내렸다.

상담 및 치료는 신 교수와 수화통역사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신과 진단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 6명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변 광주지부 소속 변호사 5명과 이명숙 변호사가 참여하는 변호인단을 꾸려 가해자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피해학생 6명의 진단 결과와 ▲성폭력 사실이 인정돼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최근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사례 등을 고려해 교직원 등 가해자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2~3종류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무사 부대장 2명 문책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부대장 2명을 문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15일 "서울 송파지역의 210 기무부대장과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 등 2명을 지난 11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두 사람은 아무런 보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택배" 문열자 금목걸이 날치기

20대 영장 신청… 광주 절도 잇따라

대낮 주택가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이모(여·76)씨의 집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침입, 이씨가 걸고있던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주했다.

이 남성은 이씨의 집 앞에서 "택배물건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이씨가 문을 열어주자 목걸이를 빼앗아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부경찰은 이날 찜질방 이용객들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박모(2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찜질방에서 수면중인 손님 김모(37)씨의 보관함에 있던 현금 등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밖에도 심야시간대 아파트 상가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훔친 10대 4명이 서부경찰에 붙잡혔고, 의뢰인의 집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인테리어업자가 남부경찰에 붙잡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생·고등학생까지 잇단 성범죄

10대 여학생·심야 여성 상습 강제추행

성폭행·성추행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5일 여고생인 사촌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장모(30·경기도)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 9월 14일 새벽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친척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동생 A(17)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방범대원을 사칭해 여중생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조모(29)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여중생 B(12)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북부경찰도 귀가중인 10대 여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대학생(20)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심야시간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고교생(17)이 목포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성인들은 물론 고등학생, 대학생 등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범행대상도 아동, 장애인, 가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직원 성희롱' 의혹 소방서장 해임

전남소방본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술자리를 거부하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소방서장이 해임됐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임 여성 119구급대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직위해제된 A소방서장(소방정)을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구급대원으로 임용된 B소방사로부터 "올해 1월 말 센터장 C소방위의 지시에 따라 A서장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폭탄주를 억지로 마시고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술자리를 거부하자 지난 2월께 부당한 전보 조치를 했다"며 지난 8월 A서장과 C소방위를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토대로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A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여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C소방위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금 체불 심형래 불구속 기소

쌍나팔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심형래 (주)영구아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

○…검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1일에는 심 대표를 소환조사.

○…심 대표는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검찰은 설명. /연합뉴스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1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7·9급 검찰직 | 9급 소방직(전문)
한빛고시학원
작업 군인 부사관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 사회복지직 | 명품 "강력단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